

Session 13 Jesus' Power Over Nature, Demons, and Death (Mk. 3-5)

제 13 강 예수님의 권능: 자연, 악한 영과 죽음에 대한 권능 (막 3-5 장)

I. INTRODUCTION

도입

- A. In this session, we will look at increased rejection of Jesus (Mk. 3:22-30). After this Mark recorded four miracles that revealed Jesus' identity by demonstrating His power over *nature* (calmed a storm), *demons* (Gadarene demoniac), *sickness* (woman who touched his garment), and *death* (Jarius' daughter) in Mark 4:35-5:43. These miracles occurred in Galilee the autumn of AD 28.

이 강의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 더 증가된 모습을 살펴볼 것이며 (막 3:22-30), 그 후에는 마가복음 4:35-5:43 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참 정체성을 알려주는 네 가지 기적들, 즉 자연 (폭풍을 잠잠케 하심), 악한 영들 (거라사 귀신 들인 사람), 질병 (예수님의 옷을 만져 치유됨), 죽음 (야이로의 딸)에 대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살펴본다. 이 기적들은 AD 28 년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들이다.

- B. After Jesus healed a man of a withered hand on the Sabbath in a synagogue in Galilee, the Pharisees plotted to kill Jesus (Mk. 3:1-6). The Jewish leaders' firm resolve to kill Jesus (Mk. 3:6) is the development that separates Jesus' *early* Galilean ministry (Mk. 1:14-3:6) from His *later* Galilean ministry (Mk. 3:7-10:1) and is the reason Jesus taught the parables of the kingdom (Mk. 4:1-34; cf. Mt. 13:1-52; Lk. 8:4-18). Jesus confirmed His words (Mk. 4:1-34) with miracles (Mk. 4:35-5:43).

예수님이 갈릴리의 회당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 (막 3:1-6).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일은 (막 3:6)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갈 1:14-3:6)과 갈릴리 후기 사역(막 3:7-10:1)을 분리해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이기도 하다 (막 4:1-34; 비교. 마 13:1-52; 눅 8:4-18).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마 13:1-52; 눅 8:4-18)을 기적을 통해 입증해주셨다 (막 4:35-5:43).

II. JESUS' FIRST PUBLIC REJECTION BY JEWISH LEADERS (MK. 3:20-30)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최초의 공개적인 거절 (막 3:20-30)

- A. Jesus' family and friends were concerned for Him because of His intense busyness (Mk. 3:20-21). Thus, they planned an "intervention" requiring them to leave Nazareth to go to Jesus in Capernaum to force Him to rest. They were very concerned for His mental and emotional stability

예수님의 친족들과 친구들은 그분이 극도로 바쁜 것을 염려했고 (막 3:20-21), 그들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에게 "개입해서" 강제로 쉬게 만들려고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안정감에 대해 매우 염려했다.

²⁰*The multitude came together...so that they could not so much as eat bread.* ²¹*But when His own people heard about this, they went out to lay hold of Him, for they said, "He is out of His mind."* (Mk. 3:20-21)

²⁰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느니라 ²¹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고 함이라 (막 3:20-21)

1. *Eat bread*: So many gathered inside and outside of the house that Jesus could not eat or rest.

식사할 겨를도: 예수님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집 안팎에 모인지라 먹거나 쉴 수가 없었다.

2. **Lay hold:** The Greek word *kratesai* means “to seize” someone (Mk. 6:17; 14:1, 44, 46, 49).

붙들러 나오니: 헬라어 크라테사이(*kratesai*)의 의미는 누군가를 “붙잡다”라는 의미이다 (막 6:17; 14:1, 44, 46, 49).

- B. Jesus' first public rejection by the Jewish leaders (Mk. 3:22-30; cf. Mt. 12:22-37; Lk. 11:14-26) occurred in Galilee. As Jesus' family was traveling from Nazareth to Capernaum, an official delegation of leaders came to Jesus from Jerusalem—both groups wanted “to seize” Jesus. Those from Jerusalem were telling the people that Jesus used demonic power to cast demons out of people.

유대인 지도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거절한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막 3:22-30; 비교. 마 12:22-37; 눅 11:14-26). 예수님의 가족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향하고 있을 그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정식으로 보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오고 있었다. 이 두 그룹은 모두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내쫓기 위해 귀신의 능력을 사용했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²² *And the scribes who came down from Jerusalem said, “He has Beelzebub,” and, “By the ruler of the demons He casts out demons.”* ²³ *So He...said...“How can Satan cast out Satan? 24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25 And if a house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house cannot stand...²⁷ No one can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plunder his goods, unless he first binds the strong man. And then he will plunder his house.”* (Mk. 3:22-27)

²²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²³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²⁴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²⁵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 ²⁷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막 3:22-27)

1. **Beelzebub:** There are varying ranks and functions in the kingdom of darkness.

바알세불: 어둠의 영역에도 다양한 계급과 역할이 있다.

2. **Kingdom of God:** Casting out demons was one evidence that the kingdom of God actually was manifested in Jesus' ministry.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내쫓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증거였다.

²⁸ *“But if I cast out demons by the Spirit of God, surely the kingdom...has come upon you.”* (Mt. 12:28)

²⁸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 12:28)

- C. Jesus warned those who attributed His saving power to Satan that they were committing a sin leading to eternal judgment. All sins or categories of sin can be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영벌에 들어갈 죄를 짓고 있음을 경고하셨다. 모든 종류의 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사함받을 수 있다.

²⁸“Assuredly, I say to you, all sins will be forgiven the sons of men, and whatever blasphemies they may utter; ²⁹but he who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never has forgiveness, but is subject to eternal condemnation”—³⁰because they said, “He has an unclean spirit.” (Mk. 3:28-30)

²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²⁹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³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막 3:28-30)

- D. **Blasphemy of the Spirit:** This speaks of a final, complete rejection of the Spirit's ministry to one's heart. Such a person does not want God's salvation. This hardening against the Spirit was evident by them referring to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hrough Jesus as being “demonic.”

성령을 모독함: 이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거절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도 않는다. 이들이 성령님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귀신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III. JESUS' FAMILY CAME TO SEE HIM (MK. 3:31-35)

예수님의 가족이 그분을 보러 오다 (막 3:31-35)

- A. Jesus' family came to Him in Capernaum (Mk. 3:31-35; cf. Mt. 12:46-50; Lk. 8:19-21). Jesus was not diminishing family relationships here. He taught people to honor their parents (Mk. 7:10-13).

예수님의 가족은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보러 왔다 (막 3:31-35; 비교. 마 12:46-50; 눅 8:19-21). 예수님은 여기서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다 (막 7:10-13).

³¹Then His brothers and His mother came, and standing outside they sent to Him, calling Him. ³²And a multitude was sitting around Him; and they said to Him, “Look, Your mother and Your brothers are outside...” ³³But He answered them, saying, “Who is My mother, or My brothers?” ³⁴And He looked around in a circle at those who sat about Him, and said, “Here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³⁵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is My brother and My sister and mother.” (Mk. 3:31-35)

³¹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³²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³³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³⁴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또는 형제들 ³⁵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막 3:31-35)

- B. This was a significant statement in the Jewish culture that greatly valued family relationships. Jesus defined the relationships in His eternal family as extending *beyond* natural family blood lines.

이는 가족 관계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유대 문화 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가족의 개념을 혈연에 의한 관계를 넘어서서 영원한 가족의 개념으로 확장시키셨다.

IV. JESUS CALMED A STORM (MK. 4:35-41)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다 (막 4:35-41)

- A. Mark is emphasizing Jesus' identity by demonstrating His power over *nature* (calmed a storm). Jesus taught the parables of the kingdom by the sea (Mk. 4:1-34; cf. Mt. 13:1-52; Lk. 8:4-18).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자연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권능(폭풍을 잠잠케 하심)을 기록하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셨다 (막 4:1-34; 비교. 마 13:1-52; 눅 8:4-18).

- B. Jesus calmed a storm as the disciples were crossing the Sea of Galilee (Mk. 4:35-41; cf. Mt. 8:18-28; Lk. 8:22-26), going from the west side of the sea, arriving at Decapolis on the east side (5:20).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으며 (막 4:35-41; 비교. 마 8:18-28; 눅 8:22-26), 이는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서 출발해서 동쪽의 데가볼리로 가는 중이었다 (5:20).

³⁵ *On the same day, when evening had come, He said to them, "Let us cross over to the other side."* ³⁶ *Now when they had left the multitude, they took Him along in the boat...* ³⁷ *A great windstorm arose...* ³⁸ *But He was in the stern, asleep on a pillow. And they awoke Him and said to Him,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³⁹ *He arose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Peace, be still!"* ⁴⁰ *He said...* ⁴¹ *They feared exceedingly and said..., "Who can this be,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Mk. 4:35-41)

³⁵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³⁶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³⁷ 큰 광풍이 일어나며 ... ³⁸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³⁹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 ⁴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 ⁴¹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막 4:35-41)

- C. *Asleep on a pillow*: This emphasized both Jesus' peace and His physical exhaustion.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는 예수님이 평안 가운데 있으며, 육신적으로 지친 것을 말해준다.

- D. *Perishing*: These words of the disciples contradicted God's Word to them (4:35). The storm on the outside revealed their storm of internal unbelief. Their eyes were not on His Word, but on the storm.

죽게 된 것: 제자들의 이 말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다 (4:35). 외부에서 불어대는 폭풍은 그들 내면의 불신의 폭풍을 드러나게 했다. 그들의 눈은 그분의 말씀을 향하고 있지 않았고, 폭풍에 고정되어 있었다.

- E. *Rebuked the wind*: He commanded inanimate objects like the wind, sea, and fig tree to obey Him.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분은 바람이나 바다와 같은 무생물과, 무화과 나무에게 그분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다.

- F. *Why are you so fearful*: The disciples had no reason to fear because Jesus told them to go cross the sea (Mk. 4:35), He was with them in the boat, and they had seen His authority over death. They had opportunity to grow in faith, which He wanted them to do (Mk. 7:18; 8:17-33; 9:19).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기에 (막 4:35), 그리고 그분이 배에 함께 계셨기에, 또 죽음에 대한 그분의 권세를 목격했기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가 있었고, 이는 그분이 원하던 것이었다 (막 7:18; 8:17-33; 9:19).

¹⁸When Jesus saw great multitudes about Him, He gave a command to depart to the other side... (Mt. 8:18)

¹⁸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마 8:18)

- G. *They feared exceedingly*: The disciples were awestruck with the fear of God even as they were learning that Jesus had authority over nature. This was a measure of authority unknown to them.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연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다. 이러한 권세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이었다.

V. JESUS HEALED THE GADARENE DEMONIAK (MK. 5:1-20)

예수님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다 (막 5:1-20)

- A. Jesus healed the Gadarene demoniac (Mk. 5:1-20; cf. Mt. 8:28-34; Lk. 8:27-39). This was an unusual level of demonic bondage—it was probably the most severe case of demon-possession in all the land.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was near the Greek communities who lived in Decapolis (5:20).

예수님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막 5:1-20; 비교. 마 8:28-34; 눅 8:27-39).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있는 정도는 보통을 넘어서는 것으로써, 그 땅 전체에서 가장 심하게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을 것이다. 거라사는 데가볼리의 헬라인 공동체들과 가까운 곳이었다 (5:20).

¹Then they came to the other side of the sea, to the country of the Gadarenes. ²...There met Him out of the tombs a man with an unclean spirit, ³who had his dwelling among the tombs; and no one could bind him, not even with chains...⁴the chains had been pulled apart by him... ⁵And always, night and day, he was in the mountains and in the tombs, crying out and cutting himself with stones...⁷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and said, "What have I to do with You, Jesus, Son of the Most High God?..."⁸For He said to him, "Come out of the man, unclean spirit!" (Mk. 5:1-8)

¹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²...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³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⁴...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⁵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⁷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⁸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막 5:1-8)

1. Matthew 8:28 refers to two men. Mark and Luke singled out the main one that Jesus healed. Many people in Decapolis (5:20) knew of the fierce power of this demoniac (Mt. 8:28).

마태복음 8:28 절은 두 사람을 언급한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고치신 한 명만 부각시킨다. 데가볼리의 많은 사람들은 (5:20)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난폭한 힘을 알고 있었다 (마 8:28).

²⁸...to the country of the Gergesenes, there met Him two demon-possessed men, coming out of the tombs, exceedingly fierce, so that no one could pass that way. (Mt. 8:28)

²⁸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 8:28)

2. The demons provided supernatural strength and controlled the man's words and actions.

귀신들은 이 사람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고 있었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있었다.

3. Jesus crossed the Sea of Galilee to set this demonic free and then crossed right back over to be met by crowds who were waiting for Him. He was probably only gone for less than one day.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그분을 기다리던 큰 무리를 만나셨다. 그분이 건너갔다 오신 것은 아마 하루가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¹⁸ And when He got into the boat, he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Him that he might be with Him... ²¹ Now when Jesus had crossed over again by boat to the other side, a great multitude gathered to Him; and He was by the sea. (Mk. 5:18-21)

¹⁸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 ²¹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막 5:18-21)

- B. Jesus commanded the leading demon named Legion who had authority over many demons. The demon spoke of "my" (singular) and "we" (plural). A legion was made up of about 5,000 Roman soldiers. The word *legion* suggests their size and organization. "All" the other demons spoke (5:12).

예수님은 군대(군단)라는 많은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가 있던 지도자급의 악한 영에게 명령하셨다. 이 악한 영은 "내" (단수) 그리고 "우리" (복수)라는 주어를 사용했다. 군대(군단)는 대략 5,000 명의 로마 병사들로 이루어졌었다. 군대(군단)라는 단어는 이들의 수와 조직을 가늠하게 해 준다. 12 절에서는 "모든" 악한 영들이 말했다.

⁹ Then He asked him, "What is your name?" And he answered, saying, "My name is Legion; for we are many"... ¹² So all the demons begged Him, saying, "Send us to the swine..." ¹³ ...Then the unclean spirits went out and entered the swine (there were about two thousand); and the herd ran violently down the steep place into the sea, and drowned in the sea. (Mk. 5:9-13)

⁹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 ¹² 이에 (한글 KJV: 모든 마귀들이)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¹³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막 5:9-13)

1. In deliverances, demons can talk back through the voice of the person they inhabit. They find the greater expression by dwelling in a human being instead of being cast out to the waterless places, the desert region (Mt. 12:43). Demons can dwell in animals and affect their behavior.

축사의 과정에서, 악한 영들은 그들이 잡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말할 수 있다. 그들은 물 없는 장소, 광야로 내쫓기기보다 (마 12:43), 인간 안에 머물러서 자신을 더욱 드러내길 원한다. 악한 영들은 동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³¹ And they begged Him that He would not command them to go out into the abyss. (Lk. 8:31)

³¹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눅 8:31)

2. The law of Moses prohibited Jewish people from eating pork (Lev. 11:7). Some suggest that this farm of pigs was owned by a Jewish man living in Decapolis to avoid being detected by the Jewish authorities. There were good profits in selling pork to the Greek community.

모세 율법은 유대인들이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을 금했다 (레 11:7). 어떤 사람은 이 돼지 떼들이 어떤 유대인이 유대인 권세자들의 눈을 피해 데가볼리에서 키우고 있던 것이라 생각한다. 헬라인들에게 돼지고기를 팔면 많은 이득이 났었다.

- C. Jesus allowed the disciples and the Greeks to see the destructive power of demons and to see the magnitude of the miracle of the deliverance of the demonic. This violent, strong, wild, naked demonic was now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desiring to be a disciple of Jesus.

예수님은 제자들과 헬라인들이 보는 앞에서 악한 영들의 파괴적인 힘과,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되는 큰 기적을 행하셨다. 이 난폭하고 힘 센, 거칠며, 옷을 입고 있지 않던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¹⁴So those who fed the swine fled, and they told it in the city and in the country. And they went out to see what...had happened. ¹⁵Then they...saw the one who had been demon-possessed... sitting and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¹⁷They began to plead with Him to depart from their region. ¹⁸And when He got into the boat, he who had been demon-possessed begged Him that he might be with Him. ¹⁹However, Jesus did not permit him, but said to him, "Go home to your friends, and tell them what great things the Lord has done for you..." ²⁰And he departed and began to proclaim in Decapolis all that Jesus had done for him; and all marveled. (Mk. 5:14-20)

¹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¹⁵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켰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 ¹⁷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¹⁸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¹⁹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²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막 5:14-20)

1. **Decapolis:** a group of ten cities east of the Jordan that were predominately Greek. The word *deca* means ten. This league of Greek cities helped Rome resist Jewish uprisings.

데가볼리: 이 곳은 요단강 동쪽의 열 개의 마을로써 대부분 헬라인들이 살고 있었다. 데가(deca)는 숫자 열을 뜻한다. 이 헬라 도시들은 로마가 유대인 폭동을 막도록 도왔다.

2. **Afraid:** The Greek people were afraid—maybe they were fearful of what a Jewish prophet with so much power might do in their region. The disciples had just expressed their fear of His power over the storm (4:40).

두려워하더라: 이 헬라인들은 두려워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유대인 선지자가 그들 지방에서 무슨 능력을 행할지 몰라 두려워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폭풍에 대해 권세를 가지신 것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냈다.

³⁷Then the whole multitude of the surrounding region of the Gadarenes asked Him to depart from them, for they were seized with great fear. (Lk. 8:37)

³⁷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눅 8:37)

3. Later, John fell in fear before the glory of Jesus (Rev. 1:17).

이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엎드려졌다 (계 1:17).

¹⁶ ...and His countenan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its strength. ¹⁷And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dead. But He laid His hand on me, saying to me, "Do not be afraid;" (Rev. 1:16-17)

¹⁶ ...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¹⁷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계 1:16-17)

4. **Tell them:** Why did Jesus tell the man to tell others about the miracle after He told others to tell no one about their healing (Mk. 1:44; 5:43; 7:36)? Jesus was not concerned about stirring up the Jewish authorities in this predominately Gentile region territory.

네 가족에게 알리라. 예수님이 얼마 전에 한 사람에게는 치유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시고 (막 1:44; 5:43; 7:36),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알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주로 이방인들만 살던 이 지역에서는 유대인 권세자들을 자극할 일이 없었다.

VI. THE WOMAN WHO TOUCHED HIS GARMENT AND JARIUS' DAUGHTER (MK. 5:21-43)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 (막 5:21-43)

- A. Jesus crossed the sea to deliver the "famous" demoniac (Mt. 8: 28), then crossed it again to return to Galilee—the multitude was waiting for Him (Mk. 5:21; Lk. 8:40). The crowd never left.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유명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마 8:28)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으며, 큰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막 5:21; 눅 8:40). 이 사람들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²¹Now when Jesus had crossed over again by boat to the other side, a great multitude gathered to Him; and He was by the sea. ²²And behold,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came, Jairus by name. And when he saw Him, he fell at His feet ²³and begged Him earnestly, saying, "My little daughter lies at the point of death.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and she will live." (Mk. 5:21-23)

²¹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²²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²³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막 5:21-23)

- B. Jesus healed the woman who touched His garment and raised Jairus' daughter (Mk. 5:21-43; cf. Mt. 9:18-26; Lk. 8:41-56). This probably took place in Capernaum.

예수님은 옷을 만진 여인을 고치셨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다 (막 5:21-43; 비교. 마 9:18-26; 눅 8:41-56). 이는 아마 가버나움에서 생긴 일일 것이다.

1. **Ruler of a synagogue:** This was a respected lay leader who oversaw the buildings and the services. Such rulers were not Pharisees, scribes, or priests.

회당장: 회당장은 회당을 돌보고 예배를 관장하던 존경받는 일반인 지도자였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이 아니었다.

2. **Lay hands on her:** The multitudes sought to touch Jesus to be healed (Mk. 3:10; 6:56).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 큰 무리는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길 원했다 (막 3:10; 6:56).

3. Jesus was on His way to pray for Jairus' daughter, but was hindered by the great multitude.

예수님은 아이로의 딸을 위해 기도해주기 위해 갔지만, 큰 무리로 인해 가는 길이 쉽지 않았다.

- C. This woman represents someone who is incurable and hopeless without a miracle (5:26).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기적이 없이는 고칠 수도, 희망도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5:26).

²⁴So Jesus went with him, and a great multitude followed Him and thronged Him. ²⁵Now a certain woman had a flow of blood for twelve years. ²⁶...She had spent all that she had and was no better, but rather grew worse. ²⁷When she heard about Jesus, she came behind Him in the crowd and touched His garment. ²⁸For she said, "If only I may touch His clothes, I shall be made well." ²⁹Immediately the fountain of her blood was dried up... ³⁰And Jesus, immediately knowing in Himself that power had gone out of Him...said, "Who touched My clothes?"... ³³But the woman...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fell down before Him and told Him the whole truth... ³⁴He said to her, "Daughter,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Mk. 5:24-34)

²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²⁵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²⁶ ...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²⁷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²⁸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려라 ²⁹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³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 ³³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 ³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 (막 5:24-34)

1. **Your faith:** Jesus wanted her to know it was her faith in Him that resulted in her healing. Faith or expectancy for God to move released His power on her behalf.

네 믿음이: 예수님은 그녀가 믿음으로 인해 나왔음을 알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그분이 일하시리라는 그녀의 기대감으로 인해 그분의 능력이 부여졌다.

2. **Power had gone out of Him:** Jesus was aware that power left Him and touched someone.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예수님은 자신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음을 인지하셨다.

3. Power sometimes flows from the Spirit through God's people (Jn. 7:38-39; Eph. 3:19).

성령님의 일하시는 권능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흘러간다 (요 7:38-39; 엡 3:19).

³⁸He who believes in Me...out of his heart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³⁹But this He spoke concerning the Spirit, whom those believing in Him would receive... (Jn. 7:38-39)

³⁸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³⁹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요 7:38-39)

4. Paul spoke of laboring according to the power that mightily dwelt in him (Col. 1:29).

바울은 자신 안에서 능력있게 거하시는 능력(권능)을 따라 수고하는 것을 말했다 (골 1:29).

²⁹ *I also labor, striving according to His working which works in me mightily. (Col. 1:29)*

²⁹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 1:29)

D. The raising of Jairus' daughter from the dead (Mk. 5:21-24, 35-43; cf. Mt. 9:18-26; Lk. 8:40-56): Jairus was undoubtedly anxious to get through the throng of people.

죽은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다 (막 5:21-24, 35-43; 비교. 마 9:18-26; 눅 8:40-56): 아이로는 너무도 근심이 되어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에게 나왔다.

³⁵ *While He was still speaking, some came from the ruler of the synagogue's house who said, "Your daughter is dead..."* ³⁶ *He said to the ruler..., "Do not be afraid; only believe."* (Mk. 5:35-36)

³⁵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 ³⁶ 예수께서 ...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막 5:35-36)

E. Jairus was probably devastated when he heard the news that his daughter had just died (5:33).

아이로는 아마도 딸이 방금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다 (5:33).

F. **Only believe:** Jesus often connected the release of His blessing to people hearing with faith (5:36). (Mt. 8:10, 13, 26; 9:2, 22, 29; 14:31; 15:28; 16:8; 17:20; 21:21; Mk. 2:5; 4:40; 5:34; 9:23; 10:52; 11:22-24; Lk. 5:20; 7:9, 50; 8:25, 48; 12:28; 17:5-6, 19; 18:8, 42; 22:32; Acts 3:16; 6:5, 8; 11:24; 14:9; 16:5; 20:21; 26:18; Rom. 1:17; 3:21-31; 4:5-20; 5:1-2; 9:30-33; 10:6-10, 17; 11:20; 12:3, 6; 1 Cor. 16:13; 2 Cor. 4:13; 5:7; Gal. 2:16, 20; 3:2-14, 22-26; 5:5-6; Eph. 2:8; 3:12, 17; 6:16; Phil. 3:9; Col. 2:12; 1 Tim. 1:5; 4:6; 6:12; Philem. 6; Heb. 4:2; 6:12; 10:22, 38; 11:1, 3, 6; 12:2; Jas. 1:5-6; 2:5; 2:14-26; 5:15; 1 Pet. 5:9; 1 Jn. 5:4; Jude 3)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자주, 그분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일을 사람들의 믿음과 연관지어 말씀하셨다 (마 8:10, 13, 26; 9:2, 22, 29; 14:31; 15:28; 16:8; 17:20; 21:21; 막 2:5; 4:40; 5:34; 9:23; 10:52; 11:22-24; 눅 5:20; 7:9, 50; 8:25, 48; 12:28; 17:5-6, 19; 18:8, 42; 22:32; 행 3:16; 6:5, 8; 11:24; 14:9; 16:5; 20:21; 26:18; 롬 1:17; 3:21-31; 4:5-20; 5:1-2; 9:30-33; 10:6-10, 17; 11:20; 12:3, 6; 고전 16:13; 고후 4:13; 5:7; 갈 2:16, 20; 3:2-14, 22-26; 5:5-6; 엡 2:8; 3:12, 17; 6:16; 빌 3:9; 골 2:12; 딤후 1:5; 4:6; 6:12; 몬 6; 히 4:2; 6:12; 10:22, 38; 11:1, 3, 6; 12:2; 약 1:5-6; 2:5; 2:14-26; 5:15; 벰전 5:9; 요일 5:4; 유 3)

G. Jesus brought only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into the girl's room to witness the miracle. These were the same three man that He later asked to join Him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Mt. 17:1-7; Mk. 9:2; 2 Pet. 1:16-19) and in Gethsemane (Mk. 4:33).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아이로의 딸의 방에서 기적을 목격하게 하셨다. 이 세 사람은 후에 변화산과 (마 17:1-7; 막 9:2; 벰후 1:16-19) 겟세마네에서 (막 4:33)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 그 세 사람이다.

³⁷ *And He permitted no one to follow Him except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Mk. 5:37)*

³⁷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 5:37)

- H. Professional mourners were paid to wail and play flutes. Jesus used the word “sleep” on other occasions to speak of someone who died whom He was going raise up (Mt. 9:24; Jn. 11:11-14).

전문적으로 애곡하는 이들은 울고 피리를 불어서 돈을 받았다.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도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잔다”는 표현을 쓰셨다 (마 9:24; 요 11:11-14).

³⁸ *Then He came to the house of the ruler of the synagogue, and saw a tumult and those who wept and wailed loudly. ³⁹When He came in, He said to them, “Why make this commotion and weep? The child is not dead, but sleeping.” (Mk. 5:38-39)*

³⁸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³⁹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막 5:38-39)

- I. Jesus spoke directly to those whom He was raising from the dead (5:41; cf. Lk 7:14; Jn. 11:43).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실 때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5:41; 비교. 눅 7:14; 요 11:43).

⁴⁰ *...But when He had put them all outside, He took the father and the mother...and those who were with Him, and entered where the child was lying. ⁴¹Then He took the child by the hand, and said to her,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⁴²Immediately the girl arose...she was twelve years of age. And they were overcome with great amazement. ⁴³But He commanded them strictly that no one should know it, and said that something should be given her to eat. (Mk. 5:40-43)*

⁴⁰ ...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⁴¹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⁴²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⁴³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한글 KJV: 엄히 당부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막 5:40-43)

- J. *Commanded them:* Jesus wanted to avoid all unnecessary publicity because of the recent crowds.

많이 경계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몰려든 군중들로 인해 불필요한 이목을 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²⁶ *And the report of this went out into all that land. (Mt. 9:26)*

²⁶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마 9:26)